

12/25/22

설교 제목: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 김순배 목사

말씀: 이사야 51 장 17- 53 장 12 절

(사 51:17) ○여호와와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 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사 51:18)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사 51:19)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사 51:20) 네 아들이 곧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사 51:21)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사 51:22)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 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 51:23)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옳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 52: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사 52: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 5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 52: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절관주** 창 46:6

(사 52:5)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절관주** 롬 2:24

(사 52: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 (사 52: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 (사 52:8)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 (사 52: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 (사 52: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 (사 52:11)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 (사 52:12)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절관주** 출 12:11, 출 12:33
- (사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 (사 52:14)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 (사 52:15)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 (사 53: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 (사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절관주** 요 1:46
- (사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사 53: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 (사 53: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 (사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 (사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절관주** 요 10:14
- (사 53: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2022 년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은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는 이날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보내야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속죄양으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선물 교환하고 보내는 대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보내야 합니다.

본래 성탄절인 Christmas 는 Christ + mass 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700 여년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웃시아 (BC 790-739 년), 요담 (BC 750-732 년), 아하스 (BC 735-715 년) 히스기야 (BC 715-636 년) 왕이 통치할 때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최악이 관영한 삶을 사는 유다 백성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한 예언의 말씀이 당대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예언이며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의 죄로부터의 해방 곧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먹이며 속히 깨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촉구합니다.

(사 51:9) 여호와와 그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사 51: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라합과 용은 모두 애굽 (이집트) 을 상징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답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사 51:17)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를 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사 51:18)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사 51:19)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사 51:20) 네 아들이 곧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사 51:21)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사 51:22)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를 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 51:23)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얹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정작 깨어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술 취한 인생을 정리하고 깨어나 온전한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잔을 마시고, 이방인 같은 삶에 취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진노의 잔을 마셔 바벨론까지 갔으나 이제는 진노의 잔을 거두니 깨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내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다시 시온을 향해 깨라고 하십니다.

(사 52: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사 52: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시온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당신을 분노케하였음에도 그들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시며 '힘을 내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하십니다.

죄값을 충분히 치루었으니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상거래 행위'에 비유하시며 전주인이신 하나님이 팔았던 이스라엘을 되찾아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판 전 주인, 이스라엘은 팔린 물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산 새주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사 5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사 52: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사 52:5)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는 말은 '값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돈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160 여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예언합니다.

(사 52: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느곳에서나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령이 말을
타거나 걸고 뛰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멀리서 전령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파수꾼이 먼저
왕궁에 알려 왕으로 하여금 그 전령이 가지고 오는 소식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들이 전령이 아니라 시온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 52:8)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들은 시온을 통치하러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을 보고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깨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떠나라고 하시며 부정한 삶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십니다.

(사 52:11)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사 52:12)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니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황급히 도망하듯 그곳을 떠나오지 않았습니다.

1 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하에, 2 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 하에, 3 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 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 차 귀환 때에는 바사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여서 모든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 주었으며 심지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대동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며 모욕하고 침뺏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십자가 밑에서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인양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백미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고난의 종'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로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메시야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야가 오신다는 것을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 53: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팔'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를 메시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야가 연한 순 같고 뿌리는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이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도저히 메시야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워셨고, 낮고 천한 계층이 살던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메시야로 인정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2-3m 밖에 되지 않는 지독한 근시여서 혼자 먹이를 구할 능력도,
길을 찾을 능력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은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침묵하신 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 53: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 53: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남은 살리면서 자신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등등 온갖 조롱과 야유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놓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한 죽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사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의 생명이 속건 제물로 드러지고, 그것이 씨가 되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예수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 53: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왜 주님이 성탄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물론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일이지만 마냥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만 없는 것은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물은 희생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깨어있으라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속삭이십니다.

(아 2: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 2: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 2: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회개하고 마지막 날, 주심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손잡고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십시오.